

벤처관련

중기청, 중소기업, 투자유치 지원

「중소기업 투자유치 지원사업」이 월 1회로 확대 실시되고, 초기 준비 단계부터 투자 상담까지 걸리는 소요 기간도 현행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된다. 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금년도 「중소기업 투자유치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동 사업에 참여한 기업은 IR자료 작성, 협상 자문 등 투자 유치를 위해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 제공받는다. 또한, 벤처캐피탈 등 국내·외 투자기관과의 1:1 투자 상담을 통해 투자금을 유치할 수 있는 기회도 얻게 된다. 지원 사항 가운데 기업 설명자료 작성, 기업 진단 등 기본 단계는 무상이며, 영문 IR자료, M&A 및 IPO 전략 자문 등 전문 단계는 기업이 일부 부담한다. 기업들은 원하는 자문사와 세부 지원사항을 맞춤형으로 선택할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투자유치지원센터(www.jplusceneter.org)로 신청하면 되며, 9월까지 매월 접수를 받아 총 7차례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기업제안형 투자연계 R&D사업 본격 시행

중소기업청은 올해 벤처투자자와 연계한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본격 도입·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2008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서, 올해 처음 시행되는 점 등을 감안, 우선 200억 원 규모로 시행하게 된다. 이는 기업별 지원한도가 3년, 6억 원인 점을 감안하면 향후 3년간 총 개발비 기준으로 500억 원 지원이 가능하다.

중소기업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지원계획을 공고하고 지난 3월 17일부터 접수에 들어다. 이번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과제신청 홈페이지(www.smtch.go.kr)에 사업계획서를 접수한 후, 벤처캐피탈협회(md.kvca.or.kr)에 투자심사를 요청하면 된다.

중소기업 기술혁신대전 전시참가 업체 모집

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은 중소기업 우수기술 종합전시의 장인 중소기업 기술혁신대전을 10월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 COEX 태평양홀(서울, 삼성동)에서 개최한다. 동 행사는 중소기업이 그동안 개발한 우수기술을 전시·홍보하고 기업·대학·연구기관 등 각계의 기술혁신 유공자를 포상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하고 기술혁신 성과를 확산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다. 전시회 참가 신청은 4월 25일(금)까지 기술혁신대전

행사 홈페이지(<http://www.innotech.or.kr>)를 통해 접수한다. 우수기술 전시회는 중소기업이 그동안 자체개발하거나 산학협력 등을 통해 개발한 신제품·신기술을 전시하는 행사로서 이노비즈관, 산학협력관, 기업협력관, 해외기술관, 기획관 등 총 400개 부스로 구성된다.

중소기업전용 ABS 1,500억 원 발행

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은 성장성이 유망하지만 자체 신용으로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자금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1,50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 전용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계획』을 발표하고, 금번 ABS 주관사(굿모닝신한증권)를 통해 신청·접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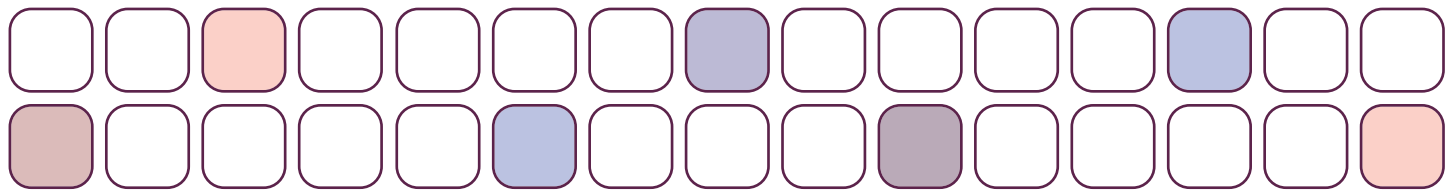
ABS 발행 신청 대상은 국내 신용평가회사의 신용등급 B이상(기술우수기업의 경우 B-이상)으로, 제조업,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및 지식기반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다. 지원한도는 개별업체의 신용도에 따라 차등화되며, 발행금리**도 참여기업의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중기청은 기술우수기업 대상 ABS의 발전적 형태로써 특허권 등 기술자산을 유동화 하는 전용 ABS 발행을 추진하고, 미래성장가능성 및 일자리 창출효과가 높은 혁신형 기업 위주로 지원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KOTRA, 모스크바에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설치

러시아 진출 우리 기업들에게 든든한 도우미가 생겼다. KOTRA(사장 홍기화)는 17일 모스크바에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이하 센터)'를 개설했다. 센터는 러시아 진출 우리기업에게 경영상 애로해결을 지원해주고 신규 진출기업에게 밀착 서비스 제공한다. 센터를 통해 우리 기업은 현지 고문번호사에게 무료 법률자문을 받고 현지 고문 컨설턴트에게 수준 높은 컨설팅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센터는 기업경영세미나도 개최하고, 주간 투자뉴스 발간으로 생생한 현지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현지 정부기관과 협력해 진출기업의 애로 해결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중진공 출자전환사업 적극 활성화 추진키로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에 대출한 정책자금을 자사 주식으로 바꾸어 주는 출자전환제도를 적극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출자전환사업이란 기술력과 미래사업성은 있으나 현재 자금부족으로 인하여 대출받은 정책자금의 원리금을 상환하기 어려운 업체를 대상으로, 회계실시를 통하여 기업가치를 평가, 기업가치에 맞게 주식으로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출자전환 기업에게는 무료 코스닥상장 컨설팅, 경영 및 기술 컨설팅, 추가 자금지원, 해외판로개척, 해외R 등 기업가치 확대를 위한 밀착지원을 중진 공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업실적이 저조한 업체에 대하여는 종합 진단을 통하여 기업의 회생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출자전환을 원하는 중소기업은 중진공 기업혁신사업처(02-769-6881) 및 중진공 각 지역분부를 통하여 문의·신청하면 된다.

서울신용보증재단, 아파트형공장 입주자금 지원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해균)은 서울시중소기업육성기금 2008년 지원액 3,200억 원의 일부분으로 아파트형공장 입주자금을 지원한다. 입주자금의 자금신청자격은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는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하고자 하는 서울시에 사업자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체이면 신청가능하고, 시설자금의 금리는 연리 5.0%(변동금리),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한도는 업체당 최고 8억 원까지 가능하다. 자금 신청은 지원자금 소진시까지 할 수 있고 현재 신청 받고 있다. 신청서류는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seoulshinbo.co.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3016-8383~5로 하면 된다.

기보, 기술창업기업에 5천억 원 특례보증 지원

기술보증기금(이사장 한이헌)은 기술력 있는 기업의 창업 활성화를 통한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기술창업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5천억 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기업은 창업후 5년 이내의 기술창업기업으로서 기술력을 보유하고 향후 우수기술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다. 기보는 이들 대상기업에 대해 ▲심사기준 완화 ▲운전자금 소요금액의 100%까지 지원 ▲보증료 0.3% 추가감면 등의 우대조치를 마련하여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업체당 지원한도는 5억 원으로, 운전자금의 경우 2억 원 이내에서 지원되며, 사업장 임차시 필요한 임차보증금에 대하여도 시설자금으로 지원한다.

특허청, 컨설팅 사례집 발간

특허기술 유출, 생산제품의 특허권 미등록 등으로 심각한 어려움에 봉착했던 중소기업들이 안심하고 기업할 수 있도록 지원해준 특허청 심사관들의 컨설팅 사례집이 발간됐다. 이 책에 수록돼 있는 8개사의 사례는 기업의 업종, 규모에서부터 특허경영과 관련한 애로사항의 내용까지 다양하다. 하지만 특허청의 심사관들이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사전진단을 거쳐 그 결과에

따라 맞춤형 컨설팅을 해준 결과 기업이 안심하고 특허권을 취득하거나 자 기 권리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역량을 지니게 되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중소기업지원 Key 발간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해줄 정보창고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낼 『2008 중소기업지원 Key』를 발간했다. 이 책자는 중소기업 경영자는 물론 실무 담당자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 위해 만든 중소기업지원 종합가이드 북으로, 자금, 신용보증, 판로, 수출, 인력, 정보화, 컨설팅 등 중소기업 경영에 필요한 정보들을 총망라하여 수록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이 해당 지원제도 신청 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Key' 자료를 게재하여 구성을 차별화했다. 중소기업 관련 각종 정책자금을 기관별, 용도별, 지역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정부 각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는 여러 중소기업육성자금을 비롯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중소기업육성정책 등을 총망라하고 있다.



경북도, One-Stop 서비스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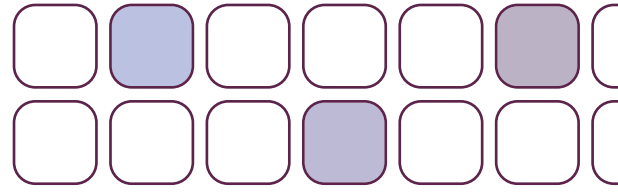
경상북도는 투자통상본부 기업지원팀내에 『중소기업 애로 해소센터』를 설치하여 기업활동을 위촉시키는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철폐 하는 동시에 기업의 애로사항을 One-Stop으로 처리하여 기업

인들이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애로사항 뿌리 뽑기에 나서기로 했다. 중소기업 애로처리 전담반은 세제, 자금, 교통, 수도, 기술, 정보 등 분야별 전담요원을 지정하여 기업애로 사항별 '맞춤식 T/F팀'을 편성하여 기업애로 사항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도청 홈페이지의 사이버 애로해소 센터를 활용하여 기업관련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하는 기업전용 메일링 서비스 운영으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토탈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북도, 지역기술이전센터 지원사업 선정

전라북도가 지식경제부의 공모 사업인 『지역기술이전센터(RTTC)지원 사업』에 선정됐다. 전북테크노파크내 설치하여 도내 대학, 연구소, 기업 기술의 원활한 이전·사업화 등 지역 기술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2008년 4월부터 2013년 3월까지 5년간 총사업비 21억 3천만 원이 지원될 계획으로 전북대, 원광대, 군산대 3개 대학의 기술이전전담조직도 참여하

VD RADAR



게 되었다. 4월부터 전문인력 7명으로 구성된 전담기구 '기술이전센터'를 설치하고 수요자(기업) 및 공급자(대학·연구소)의 연계를 통한 이전희망기술 발굴 및 기술이전 지원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대전시, 중소기업 시설투자융자지원

대전시는 올해 96억 원의 중소기업 시설투자자금을 지원하기로 하고 사업대상자 신청을 받는다. 지원대상 사업은 유동업자는 본사 또는 사업장이 관내 소재한 영업기간 6개월 이상된 업체로 ▲점포시설개선(기존 점포시설을 현대적 시설로 전환) ▲전문상가 시설개선(영업환경 개선을 위해 기존 시설을 개·보수) ▲전문상가 건립(동일업종의 점포 및 부대시설 등을 설치) ▲공동창고 건립(조직화된 유동업체들이 공동으로 창고설치) ▲시장정비사업(기존시장 등의 건물을 재개발·재건축하거나 증·개축하여 현대식 시장으로 전환) 등이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042-867-4000)로 문의하면 된다.

전남도, 중소기업에 3천만 원 이자 지원

전라남도가 올해 예산 3천만 원을 확보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중앙회 공제기금을 융자받은 기업체에 일부 이자를 지원한다. 중소기업중앙회의 공제사업기금에서 융자를 받을 경우 연 6%대의 이자 부담중 1~2%의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공제사업기금 융자금 이자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전남도 경제정책과(286-3833) 또는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062-955-9966)로 문의하면 된다.

창원시, 중소기업 종합 정보지원사이트 구축

창원시가 관내 중소기업의 활로 개척과 자생력 강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 '중소기업 종합 정보지원사이트'를 구축한다. 기존 온라인상으로 제공되는 입찰정보 등을 중소기업이 개별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면 연간 36~84만 원의 비용이 드는 것을 이반 사이트 구축으로 인해 창원시 소재 중소기업이나 사업자 등록을 한 상공인이 회원으로 가입하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가 있게 돼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4월 말에 정식 개통하는 이 사이트에는 △물가정보 △무역거래 알선정보 △입찰정보의 통합지원 △산업뉴스 △특허검색 △국제입찰정보 △당좌거래 정지 기업정보 △입찰교육 등 다양한 부가 서비스가 게재될 예정이다.

울산시, 스타벤처기업 육성사업 추진

성장 잠재력이 있는 초기창업 기업이나 유망한 중견기업을 발굴·지원하는 '2008 글로벌 스타벤처기업 육성사업'이 추진된다. 울산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는 기관간 상호 연계를 통해 성장 가능한 유망 지역중소기업을 발굴 종합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08년 글로벌 스타벤처기업 육성사업'을 공고했다. 신청기간은 4월4일까지, 지원대상은 공고일 현재 주된 사업장 주소가 울산시에 소재한 유망 중소벤처기업 8개사(신규지정 3개, 기존지정 5개사)이다. 선정된 업체에는 비즈니스 자금(총 1억9000만원) 업체당 3000만원(기존업체는 2000만원)과 자금유치, 기술개발지원 등의 다양한 지원이 이뤄진다. 자세한 내용은 울산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인터넷 홈페이지(www.ubsc.or.kr), (www.uventure.or.kr), 중기센터 기업지원팀(052-283-7136) 등으로 문의하면 된다.

경기도, 첨단 생명공학기술 이전받는다

경기도가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최첨단 미래생명공학 기술을 도입한다. 경기도 농업기술원(원장 김영호)은 농촌진흥청 농업생명공학연구원과 생명공학기술개발 및 유전자원 공동이용을 위한 기술교류와 협력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측은 ▲ 연구인력·육종재료의 지원 및 교류 ▲ 연구시설 및 장비의 공동이용 ▲ 학술·기술정보의 지원 및 교류 ▲ 국내외 농업 유전자원 수집 및 미생물 균주 공동이용 등에 합의하고 생명공학기술개발, 유전자원을 이용한 신품종(벼, 채소) 개발과 미생물 이용 연구를 위해 상호 노력하기로 했다.

부산시, '우수기업인'에게 유료도로 통행료 면제

부산시는 우수기업인에 대한 예우를 강화해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동시에 '기업하기 좋은 도시' 부산 이미지 제고를 위해 유료도로에 대한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부산시가 발행한 우수기업인증을 소지하고 시에 등록된 차량에 대해 오는 4월 30일부터 '동서고가로', '광안대로', '항령터널' 등 3개 유료도로 통행료를 전면 면제한다. 또한 부산시는 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기업애로를 파악하고 해결될 때까지 관리하는 '기업움부즈맨' 제도를 지난 2005년부터 시행해 기업인으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

전남지역 소상공인 창업 쉬워진다

전라남도는 소상공인 창업자금을 올해부터 신규사업으로 지원한다.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아이템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교육, 컨설팅, 자금 및 보증 등 일괄지원을 통해 소규모 창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대상은 창업 6개월 이내의 소기업 및 소상공인과 전남도에서 주관하는 창업교육과 컨설팅을 받아 창업하는 업체이며, 총 융자규모는 100억 원으로 매분기 25억 원씩 지원한다. 도소매업과 서비스업종은 5인 미만, 제조업·운송업·광업 분야의 상시 종업원 10인 미만 업체가 신청이 가능하며, 무도장·오락업 등 사치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전남신용보증재단(061-729-0632) 또는 전남소상공인지원센터(061-741-4153)로 연락하면 자세한 사항과 지원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

대전시, 기업용 공인인증서 발급 개시

대전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4월부터 관내 중소벤처기업의 전자상거래를 위한 기업용 공인인증서 발급업무를 개시한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통해 발급받게 돼 국가조달업무 및 관급공사 전자입찰, 인터넷뱅킹, 전자세금 납부서비스 및 기타 인터넷을 통한 상거래 등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또한, 이번 한국전자인증과의 협약을 통해 공인인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비용의 20%를 할인받는다.

경북도, 북미 IT시장 시장개척단 참가업체 모집

경상북도는 지역의 주력산업인 IT산업에 대한 수출판로 개척을 위해 대구시와 KOTRA대구경북무역관 공동으로 2008 북미 IT 시장개척단 파견에 참가할 업체를 4월 10일까지 모집한다. 시장개척단은 오는 5월 19일부터 24일까지 6일간 미국 달라스와 샌프란시스코 2개 지역으로 지역의 IT업체 10개사 정도를 파견한다. 행사기간 동안에는 현지 바이어와의 수출상담 활동과 함께 미국의 최대 IT산업 중심지인 실리콘 벨리와 텔레콤 코리도가 위치한 샌프란시스코와 달라스에서 시장개척활동을 펼칠 계획에 있어 세계 IT 시장의 흐름과 시장정보 등 IT산업의 수요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가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참가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경북도청 통상외교팀(팩스 950-2177)나 KOTRA대구경북무역관(팩스 383-8443)에 제출하면 된다.

충남도, 대산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

충남도는 지난 3월 7일자로 서산시 대산을 대죽리 일원의 1,004천㎡ 규모

의 대산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을 승인했다. 대산산업단지는 현대오일뱅크(대표이사 서영태)가 직접 개발하는 것으로 고도화정제시설(upgrade)과 BTX시설을 2009년까지 확장하며 총 투자 규모는 3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의 실시계획 승인으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모든 행정적 절차가 완료되었으며 이번 달 내부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부지조성공사를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중소 지원시책 홍보책자 3천부 발간 배부

전라남도가 중소기업의 창업과 경영 등 각종 지원시책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홍보책자 3천부를 발간해 전남도내 기업체와 시군, 유관기관 단체 등에 배부했다. 총 200쪽 분량의 책자에는 산업입지 및 기반조성, 자금지원, 판로 및 수출지원, 벤처·창업·보육·기술지원, 기능인력 양성지원, 우수기업(인) 사기진작 등 전남도의 올해 중소기업 지원시책을 일목요연하게 수록했다. 특히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비롯한 도내 중소기업인에게 지원하는 경영 안정자금,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투자보조금, 남도음식외식산업 지원 등에 대한 이용 안내와 지원 조건, 신청 절차 등을 상세하게 수록해 기업인뿐만 아니라 일반 도민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꾸며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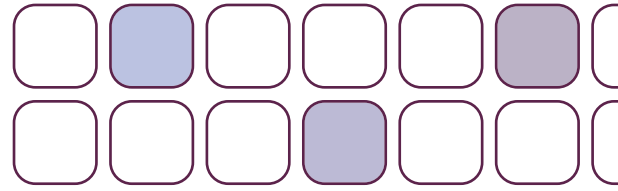
게임진흥원, 게임산업 관련 법령집 발간

한국게임산업진흥원(원장 최규남)이 디지털 융합시대의 게임 영역 확장과 더불어 늘어난 법률 수요를 감안, 게임 관련 법률 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2007 게임산업 관련 법령집'을 발간했다. 총 38개 법령으로 구성된 법령집은 저작권, 산업진흥, 공정거래, 청소년 관련 법규 등을 수록하여 게임관련 종사자들의 실무활용 및 이용자 권익을 돕도록 구성되어 있다.

KIST 전북 분원 본격출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은 전북 분원이 본격 시행된다. KIST 전북분원은 올해 건설사업에 착수하여 2012년 분원 건설작업을 완료하면 80명의 인력을 갖춘 현지 연구수행체제를 본격 가동할 방침이다. KIST는 우선 올해 연구과제와 인력운영 등 기본 사업계획을 마련하는데 주력하고, 내년에는 연

VD RADAR



구인력 확보와 선행과제 수행에 본격 나선다. 이를 위해 재료연구소, 항공 우주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화학연구원 등 관련 국책연구소 및 지역 기업들과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전북대학교 등 대학과의 공동연구와 인력양성에도 힘을 기울일 예정이다.

전남특허정보종합컨설팅센터 개소

전라남도 지역 중소기업의 특허관리 역량을 도모해 지식산업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게 될 '전남특허정보종합컨설팅센터'가 개소됐다. 센터는 앞으로 기술혁신 기반이 취약한 지역 중소기업, 특허관리 역량이 부족한 기업과 개인 등을 대상으로 기술개발 단계부터 특허권 취득·사업화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특허컨설팅을 제공한다.

전남테크노파크, 지역 성장동력 중핵기관 '우뚛'

전남테크노파크가 단지 준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총481억 원을 투입해 지하1층, 지상3의 본부동 1만1천905㎡를 비롯해 벤처동6천672㎡, 생산동 2천120㎡ 등 연건평 1만1천905㎡ 규모로 건축됐다. 앞으로 지역혁신 주체간 연계 등 지역혁신거점 기능 수행은 물론 지역 전략산업의 기획 및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산·학·연 연계를 통한 공동 기술개발, 기업체의 창업보육, 교육훈련, 시험생산, 경영지도와 기술이전 사업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

ETRI, 캐나다 Norsat사와 공동연구센터 개소

세계적으로 지능형 위성 솔루션 분야의 선두기업인 캐나다 방위산업업체가 대덕특구에서 정부출연연과 공동 연구소를 출범시켰다. ETRI(원장 최문기)는 대덕특구 내 장영실관에서 휴대 이동형 위성통신 부품 및 시스템 개발을 위하여 캐나다에 소재한 위성통신 전문업체인 Norsat International Inc(이하 Norsat)와 공동 연구를 위한 연구센터 개소했다. 'ETRI-Norsat 위성 단말시스템 공동 R&D센터'로 명명된 이 연구소는 올해 위성단말시스템을 위한 부품 연구개발을 시작으로 2010년까지 '초소형, 초경량 위성 단말 시스템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ETRI는 그 동안 연구 개발된 위성통신 분야의 다양한 기술들을 Norsat의 각종 선진 기술, 마케팅 역량과 결합하여 이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제품을 연구개발하고 그 결과물을 전 세계 시장에 Norsat의 영업망을 통하여 판매할 계획이다.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개원

서울대학교가 운영하는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 개원했다. 국내 최초이자 최대 규모로 설립된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은 신융합기술 분야를 대표하는 국제적 연구기관 및 교육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여 국내에서는 물론 세계에도 자랑할 만한 융합기술의 허브가 된다는 비전을 가지고 논문을 쓰기 위한 연구보다는 제품지향의 연구에 집중함으로써 지적소유권의 창출과 사업화에 앞장선다는 전략이다.

나노, 융합생명공학, 차세대자동차, 지능로봇, SW 및 디지털 미디어 등 9개 연구기능 이외에 서울대학교 E-MBA과정(08. 9월)과 국내 최초의 융합과학기술대학원(09. 3월)을 설립하여 운영하기로 하는 등 교육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연구개발(R&D)과 교육이 결합하여 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대덕특구, 기업으로 전담반가동 기업 옴부즈만 및 고충처리위 설치

대덕특구 내 입주기업과 기관의 애로사항 등을 상시 해결해 주기위한 원스톱 서비스 지원체계가 본격 가동된다.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이사장 박인철)는 특구내 입주 및 행정 관련 애로사항을 수시로 접수, 원스톱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업 옴부즈만'을 운영한다. 기업 옴부즈만은 기업별 고충 등에 대한 접수 및 문의창구를 일원화하기 위한 것으로, 유관기관(대전시, 중기청 등)과의 연계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본부 전문위원 2명이 경영 및 기술, 입지 및 행정 등 2개 분야로 나눠 직접 담당하며 상시적 고충처리 상담의 역할을 강화한다. 또한 특구본부와 벤처협회 홈페이지 및 창업경영지원센터를 활용해 애로사항 접수창구를 활성화하고 옴부즈만 내 콜센터(대표전화 : 1577-7751) 개념을 도입, 상시 이용 및 응답이 가능토록 했다.

기술창업-하이업 성과사례집 발간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이사장 박인철)는 기술창업 전반에 대한 성과사례집(기술창업 길라잡이)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기술창업 길라잡이는 기존의 창업 매뉴얼과는 차별화하여 기술창업에 특화된 실무적인 내용으로

구성했다. 특구본부는 이번 책자를 통해 창업을 준비하거나 창업 초기 경영자들이 직면한 다양한 위기와 기회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지침을 제공하여 기술창업의 성공률을 높이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책자는 대학, 출연(연), 창업 관련 유관기관 등을 통하여 무료로 배포 할 예정이다.

문의 : 042-865-8874

대덕특구내 한국AVT기술사업화연구조합 출범

대덕특구에 오디오-비디오 및 텔레커뮤니케이션 기술사업화를 목적으로 하는 전문클러스터인 한국AVT기술사업화연구조합이 출범했다. 한국AVT기술사업화연구조합은 특구 내 22개 기업 및 수도권 8개 기업 등 31개 기업으로 구성됐다. 연구조합은 통신 기반의 오디오·비디오 기술의 개발 및 사업화를 진행하고, 연구조합의 인가 등을 통해 국가 R&D사업 등을 수행하는 조합으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실리콘밸리, 웹2.0 투자 열기 식어

웹2.0에 대한 실리콘밸리의 열기가 식어가고 있다. 다우존스 벤처스스는 웹2.0에 투자하고 있는 벤처 캐피탈(VC)의 현황 조사를 발표했다. 이를 보면 웹2.0의 투자 붐은 이미 절정을 넘긴 듯하다. 조사에 따르면 2007년 웹2.0

에 대한 투자는 총 178건에서 13억 4,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보다 88%나 증가한 액수다.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가 페이스북이나 다른 기업에게 투자한 3억 달러를 빼면 그리 대단한 액수도 아니다. 특히 샌프란시스코 베이에리어에서는 VC의 출자수나 거래 건수가 감소함이 확인됐다. 베이에리어의 거래건수는 2006년 74건에서 지난해 69건으로 떨어졌다. 투자 금액도 2006년 4억 3,100만 달러 보다 지난해 3% 감소했다. 이제 웹2.0을 막 시작하려는 신생 기업들에게는 특히 짙은 그늘이 보이기 시작했다.

대만, 반도체 공장 건설붐

대만의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인 파워칩, TSMC, 뱅가드 등 3사가 대만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신주과학단지'에 모두 14조3000여억 원을 투자해 반도체 공장을 짓는다. 특히 대만 대표 D램 업체인 파워칩의 경우엔 내년

까지 8조여 원을 투자해 최신 공정 기술을 적용한 D램 공장 2개를 새로 짓겠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일본 유일의 D램 업체인 엘피다와 손잡고 합작사를 운영하고 있는 데 올해에만 이전 투자비보다 더 많은 5조여 원을 투자한다.

세계 1위의 반도체 위탁생산 업체인 TSMC도 4조9000여억 원을 투자해 R&D와 생산을 병행하는 공정 기술을 확보에 힘쓰고 있다.

이스라엘, 실리콘밸리의 강자로 떠올라

이스라엘 벤처가 실리콘밸리에서 새로운 다크호스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나스닥에 상장된 이스라엘 회사만 70개. 나스닥 상장 외국기업 중 가장 많은 숫자다. 2위인 중국보다 10개나 많다. 2004년 이후에만 19개 이스라엘 회사가 나스닥에 상장했을 정도로 최근의 기세는 무섭다. 지난 1월에는 벤처캐피탈 실리콘밸리뱅크(SVB)가 이스라엘 지점을 세웠다. 영국과 인도, 중국에 지점을 가진 SVB가 중국 인구의 200분의 1밖에 안 되고 분쟁지역으로 조용한 날이 없는 이스라엘에 지점을 세운 것은 실리콘밸리의 높은 관심을 드러낸다. 여타 벤처캐피탈도 지점을 세웠거나 준비 중이다.

中, 차스닥 설립 가속화

중국판 코스닥시장인 '차스닥(CHASDAQ)'의 상장 요건이 속도를 내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SCMP)는 차스닥의 상장 요건이 구체화돼 최종 규정이 곧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SCMP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순이익이 1000만 위안(약 13억 원) 이상인 기업이나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지난 회계연도 매출액이 3000만 위안 이상이면 매출액 증가율이 전년 대비 30% 이상인 회사는 차스닥 상장이 가능하다.

중국 정부가 차스닥 설립에 적극적인 데는 신기술 개발을 통한 산업구조의 고도화 전략으로 벤처기업을 적극 육성하기 위함이다. 원자바오 중국 총리도 최근 벤처펀드의 투자 범위를 확대하고 창업 지원을 확대해 신기술의 산업화를 촉진할 것이라고 말하며 차스닥 설립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